‘익산형 일자리’ 첫 발 뗀다

근로자·농가·식품사업·정부·지자체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 마련

대한민국 농식품 수도 익산을 드높일 ‘익산형 일자리’가 첫 발을 뗐다.

논의 시작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익산형 일자리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27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노·농·사·민·정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시장, 유재구 시의회 의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한국노총 익산지부 전세성 의장, 농업회의소 김선태 회장 등 노·농·사·민·정 25개 협약 주체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앙부처 인사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대한민국 농식품수도 익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익산형 일자리 경과보고, 소개영상 상영, 상생협약 체결,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형 일자리는 근로자, 농가, 식품기업,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인 하림그룹(하림푸드, 하림산업, HS푸드)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4산업단지에 5년간 3천773억원을 투자하고 63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19곳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

참여 주체 간 협력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 상생을 도모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계약재배 체계 구축, 대·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대학 간 상생, 노·농·사·민·정 상생 기금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익산형 일자리는 지난 2019년 3월에 처음 논의가 이뤄졌으며 3년여 만에 상생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상생협력 TF팀이 본격적으로 운영됐으며 익산시와 하림그룹 간 핫라인 가동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관련 부서 간 워킹 그룹을 수십차례 운영해 최종적으로 익산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마련했다.

특히 익산형 일자리는 기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과 달리 노·농·사·민·정이 참여한 모델이다. 전국 최초로 농·식품 분야를 접목해 기업에 이익(신선, 신속, 규모, 안정성)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계약재배 확대 등 농가의 판로도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산업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신청과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선정 시에는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노·농·사·민·정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이번 협약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되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농·식품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익산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

익산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는 올해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억5천만원,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과(859-5932)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을 법적 최대 한도로 높여 전체 물량의 20% 이내를 신혼부부, 10%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도 시세대비 70% ~ 85% 수준으로 낮춰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가 도내 최초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 + 익산 2630’ 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농산물 가격하락분 100% 손실보전

익산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100% 보전한다.

시는 지난 26일 해당 농가에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최저가격 지원보상금을 지급했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전북도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익산시가 시비 10%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100%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기후변화, 농산물 수입 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조례’를 개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도에 지급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대상은 출하된 노지감자, 생강, 대파 42.2t이며, 가격하락분 86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익산시는 올해에도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순차적으로 받고 최저가격보장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지역농협(원협),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차액 지원폭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더 많이’, 청년일자리사업 시동

군산시, 다각적 청년시책… 일자리생태계 구축

군산시가 2022년 청년일자리 사업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기업에 인건비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와 일 경험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역 내 기업과 청년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총사업비 60억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414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나봤다, 중소기업(9명), ▲미래형전기차산업 연계 청년그린 일자리사업(138명),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54명),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13명),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130명), ▲구해줘팜즈, 청년일자리(20명),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20명),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30명),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돼 2월부터 기업모집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등 역량개발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자 84명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청년멘토 지원사업과 공공일굼터(대학생 일자리사업) 사업을 통해 210명을 모집해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경제활동 준비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군산형 청년수당’과 일하는 청년에게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인 ‘전북 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을 실시해 47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군산의 청년플랫폼인 ‘청년뜰’의 멘토링과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도록 돕겠다”며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청년 고용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정책과(454-4382~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금석배 축구대회 2022년 첫 전국대회 열려

군산시가 2022년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전국대회를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22년 금석배 전국 중학생축구대회’가 전국 40개 팀이 참가 확정된 가운데 오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2일간 월명종합경기장 외 보조경기장 등 5개 구장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금석배 축구대회는 지난 1992년 처음 개최돼 한국 축구계에 큰 자취를 남긴 故채금석 선생의 정신과 우수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초·중·고등학생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선수단을 대상으로 사전 발열 검사소를 설치해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전체 발열검사를 실시한 뒤 숙소 및 훈련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내권 일원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주택, 상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29억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확보했으며 이는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 쾌거라 할 수 있다.

시내권 사업은 동지역 약 686세대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지원해 주게 되며, 총 사업비 58억원 규모로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아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시작으로 자부담 확보 및 시공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